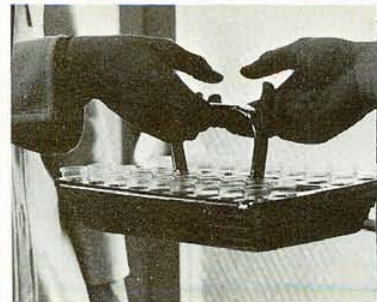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교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행스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7년 5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3권 제5호

통권 142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 화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차 례

영원한 일... 위험을 무릅쓰리요.....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1
우리 왕국의 기록.....지미 비 파커.....	5
개인 역사 기록 작성.....보이드 케이 팩커.....	8
물론 일지.....	9
할아버지의 선물.....브루스 라이만 비숍.....	11
용감했던 순간들.....케이드 크리스찬슨.....	13
한 걸음 앞으로.....낸시 엠 암스트롱.....	14
여러분 자신의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18
가정의 밤, 추억의 기록.....	19
심심풀이.....	20
신권에 관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존시 시 리들.....	21
가르치기 위한 준비.....데오 이 맥킨.....	26
더욱 완전히 배우게 되리라.....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28
지역 지도자 메시지.....이호남 스테이크 부장.....	30
지역 성도의 간증.....정재훈.....	31
교회 및 지역 소식.....	32

© 197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
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
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
/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일... 위험을 무릅쓰리요

스페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과거 수년 동안 나의 훌륭한 선조들의 유업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들에게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배움으로써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의미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애는 현재의 나에서가 아니라 나의 선조들의 생애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나는 조부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남기신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과 의로운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영광을 보고, 또한 길이 험착하여 이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주님께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나는 그러한 길을 찾아 모두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올슨 에프 휘트니, 히버 시 김볼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45년 513페이지)

우리가 영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께서 만일 그가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물”(설교집, 513페이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같은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교성 93:24)이라고 한 경전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낸 것임을 알 때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도 “영은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장차 이를 대로 이야기하나니...”(야 4:13)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보다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중사하고 있는 주님의 사업이 죽음의 장막 양편에서 매우 비슷하게 행해지고 있는 방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상에서 행해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교 사업, 신전 사업, 교회 회원의 활동을 촉진시켜 충실한 회원이 되게 이끄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훌륭한 선교 프로그램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은 지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선교 사업은 복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지상에 사는 동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장막의 건너편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의 이러한 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저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의식을 지상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지상에서 자신들을 위해 이러한 의식이 행해지기를 기다리는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과 신전 사업과 계보 사업을 구분하려는 우리 마음속의 벽을 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똑같은 위대한 구원 사업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함께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그에 따른 구원 의식을 제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복음의 경륜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각 시대마다 성신권과 신권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열쇠를 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영적인 의의 사업을 행한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각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구원 사업의 일부가 소개되었고, 또한 그 사업의 일부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 불리우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교성 27:13; 엡 1:10)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히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행 3:21)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예언은 특별히 왕국의 여러 가지 신권의 열쇠를 지녔던 과거의 예언자의 오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대에 가장들이 지녔던 성스러운 축복사의 반차의 열쇠가 회복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방대한 혈통에게 복음과 신권이 회복된 시대가 마침내 도래한 것입니다. 이 신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아브라함서 2:11)라고 한 말은 복음의 축복이 개인에게 전해지고, 신권의 새롭고 영원한 결혼 성약을 통해 지상에서 함께 모인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가족 단위로 인봉되어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조직과 사업, 말일의 신권의 조직과 사업이 신권의 열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해 선교 사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

회는 가족에 기초를 둔 교회입니다. 하늘 왕국에서의 구원을 준비하도록 가족과 개개인의 지적, 경제적, 영적 발전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구원 의식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하나님의 무수한 자녀들을 위해 신전 사업과 계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대한 선교 사업에 보다 의미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구를 읽을 때마다 나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감명을 받은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고린도 전서 15:29~30)

최근에 나는 바울의 마지막 질문을 읽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가족과 동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는가 이를 거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우리가 그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태로운 처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말일성도인 우리는 신전 사업을 행하지 않을 때 위태로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바쁜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중대한 사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의 세계와 내세에 관한 많은 영원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도적에게 한 그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3:39~43)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 죽음이 오고, 그들은 다음 세상으로 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대로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인이 구세주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왔을 때 그의 시체가 그곳에 없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세주는 동산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요 20:17)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구세주가 어디로 왜 가셨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전서 3:18, 19; 4:6)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생활 태도를 바꾸고,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전쟁이나 질병, 기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는 여러분과 내가 바빠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많은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이토록 기다리게 합니까?”라고 그들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인 조부, 증조부, 고조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신전 사업을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신전이 있으나 우리는 그곳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니, 이 중요한 사업을 하지 못할 때 위태로운 처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신전 의식이 이 세상에서 행해질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합당한 회원은 이 중대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신전을 찾아야 합니다. 신전에서 행해지는 의식 중 엔다우먼트 의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전세에서 살다가 현세로 와 경험을 쌓고 다시 승영에 이르게 되는 여정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브리감 영은 엔다우먼트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엔다우먼트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 파수꾼으로 서 있는 천사들의 옆을 지나 하나님의 면전에 되돌아가...영원한 승영에 이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6페이지)

신전에서 행해지는 엔다우먼트와 기타 의식이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을 받으러 신전에 가려는 사람은 이를 위해 준비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에 개종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은 직후 신전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들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성을 띤 이 의식에 그들의 생각을 맞추고, 생활 태도를 바꾸어 신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끔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테이크 부장이나 감독에게 복음 안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엔다우먼트를 받도록 추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는 적어도 침례를 받은 후 적어도 일 년 이상 이러한 의식과 축복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합당치 못한 행위로 신전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라는 말이 신전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신전은 주님의 집이므로,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의 손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을 성스럽고, 깨끗하고, 사랑이 깃든 집으로 가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대의 몇몇 신전이 외부 침입자의 난동으로 그 신성이 더럽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솔로몬 신전은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신전에 들어와 값진 보물을 훔쳐가고 이것을 외국으로 반출해 우상 숭배용으로 사용하여



완전히 그 신성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러한 외부 침입자의 행위만이 성스러운 곳을 더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신전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전에 들어가 성약을 맺거나, 의식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회원들에 의해서도 그 신성이 더럽혀집니다. 신전에 갔다 왔으나 성스러운 원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합당성을 입증할 결심을 하지 않고 거룩한 의식을 받았을 때 신전의 신성을 더럽히게 됩니다.

진지하고 참된 의도 없이 성약을 맺었을 때 또 성스러운 신전이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신전에 들어가는 것은 추천서를 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하고, 사랑을 품고 있고, 회개하는 마음 자세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전에 들어설 때 워싱턴 신전에서 언급된 바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루가 모두 금이며, 벽이 모두 보석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들어서십시오.
찬란한 옷을 입은 합창대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큰 소리, 서두르는 소리를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45페이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을 위해 몇 분, 몇 시간, 며칠, 몇 주나 심지어 몇 년까지도 기다려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십 년 아니 수세기 동안 신전 의식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선조가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마음의 눈으로 후손들과 지상에 있는 교회 회원이 선조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선조들을 위해서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의식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 그들을 만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게 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몇몇 신전을 다시 헌납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재헌납식을 통해서 신전에 함께 앉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선교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위한 사업도 역시 시급히 행해야 할 일임을 느껴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대한 생각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들어서 지금처럼 네 곳에 신전이 계획되거나 건축 중이고 새로운 신전이 재헌납된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총관리 직원들에게 "이 사업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잠시도 내 뇌리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전 사업의 중요성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모든 말일성도 가정에서 각 자녀의 방이나 거실에 이 아름다운 신전의 목적을 수시로 일깨워 줄 수 있는 신전 사진을 걸어 놓는 것도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항상 그들의 목표로 기억될 수 있는 신전의 사진을 보고 자라게 되면 현재보다도 앞으로 신전 결혼의 율이 크게 상승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를 권고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가정의 밤에서 신전과 그 의미가 토론되면 자라나는 어린이의 사고 방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우리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멀지 않은 미래에 성실하게 살았고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이 주야로 신전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이르면 나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신전을 찾는 사람이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조부인 히버 시 킴볼 장로님은 그의 일지에 1846년 2월 마지막 주 동안 많은 사람이 주야로 신전을 다녀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브리감 영이 한 그룹을, 윌라드 형제가 또 한 그룹을, 자신이 또 한 그룹을 데리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성실한 성도들은 신전에서 행해지는 축복과 의식을 받는 데 매우 열성을 보여 그들이 서부로 이동하기 전 몇 시간 동안은 마치 신전에서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에게 그들의 성스러운 가족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로 돌리게 하는 사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책" (교성 128:24)인 이러한 기록은 말라기가 말한 바대로 "의로운 제물"(말 3:3)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스러운 신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살아 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선교 사업, 복지 사업, 가정 교육, 신전 사업, 계보 사업의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 올 일을 위해 바른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나는 나의 조부인 히버 시 킴볼 장로님이 남긴 마지막 공식 말씀이 "모든 사람이 가정에 질서를 세울 때가 도래하였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지.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교리와 성약 128:22)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서 참으로 이 위대한 사업을 힘차게 밀고 나가 영원한 보상을 잃게 될 위험한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우리 왕국의 기록

지미 비 파커

가족 역사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



몇 년 전에 아내와 나는 솔트레이크 신전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 의식을 받았다. 나는 그 인봉 의식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참 뜻을 그 당시보다도 지금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에 영원한 가족 단위인 새로운 왕국의 기초가 놓인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는 나의 이름으로 세워진 왕국의 중요성을 더욱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신전 제단에서 주어진 축복의 약속과 함께 “내 왕국”을 돌보고 기록을 남기라는 성스러운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

기록이란 하나님의 모든 왕국 즉 교회, 가정, 개인에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기록 보관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세는 기도를 끝낸 후 매우 중요한 안건을 평의회 의제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는데, 이것을 회상할 때마다 깊은 후회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교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었는데, 그 기록들이 현재 수중에 있다면 어떠한 재물과도 바꾸지 않았을 것들이었다. 우리는 그 기록들이 우리의 후세에 어떤 이익이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72페이지)

교회는 왕국의 사업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절감했다. 개인 왕국의 기록에 관해서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가정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 가족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이 가족 제단의 첫번째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알려지고 사용되어야 할 책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그들이 가져가야 할 첫번째 소유물은 바로 그 가족 기록이어야 하며, 그들에 의해 기록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복사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접할 때 우리는 힘과 영감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기록 작성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치 뉴스, 1942년 10월 31일자)

윗소 장로가 제시한 기록이나 다른 주님의 종이 권고하는 기록들은 현명한 부모의 손에 있을 때 자녀와 손자들을 가르치는 데 매우 좋은 교육 자료가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기록이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

우리 중의 대부분은 개인 역사 기록, 가족 역사 기록, 기억의 책, 개인 일지, 성스러운 경험에 관한 기록, 재정 기록 등에 관해 들은 바 있다. 이러한 것은 너무 광대한 것으로 보이나 잘 정리가 될 때 그다지 어려운 수고를 요하지는 않는다.

1.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교회의 청소년에게 일지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대관장님은 일지에 무엇이 실려야 하는지를 주의깊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다.

“청소년 여러분, 영원토록 남겨져, 천사들이 인용하게 될 그러한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행사와 뜻깊었던 생각, 성공과 실패, 사권, 승리, 인상과 간증을 기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사람을 꾸짖음을 기억하십시오.”(니삼 23:7~13 참조)

2. 이것은 우리 생애의 기록을 남기라고 최근에 자주 언급되어 온 것 중의 하나이다. 1976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에서 또 다른 기록의 하나인 개인 역사 기록 작성에 대해 강조된 바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에 대한 기록 자료를 얻고자 노력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생애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맛보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개인 역사 기록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개인 일지나 일기, 일년 행

사책, 이력서나 전기, 스크랩북이나 앨범, 테이프, 교회 활동 기록, 편지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애에 중요했던 사건 중 후세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을 요약해서 우리 생애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 일단 시작해서 현재의 상황까지를 기록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매 2, 3년마다) 검토하고 새로운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끝난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기록하는 일에 숙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녹음 테이프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후에 자녀나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이 이를 듣고 적을 수 있다.

나는 개인 역사 기록에 싣고 싶은 내용을 기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작은 메모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임을 알았다. 각 카드의 꼭대기에 과거 지내 온 연도를 적는다. 지난 추억이나 경험이 살아날 때마다 그 해 안에 그 사건을 기억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적어 놓는다. 때로는 연도가 기억되지 않으므로, “학교 다니기 전”, “학교 시절” 등으로 일반적인 시기를 적어 놓기도 한다. 그렇게 준비된 카드는 나의 개인 역사를 기록하는 데 기초가 된다.

가족이 주변을 정리하고 선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가족 역사 기록에 선조들이 지냈던 경험을 싣고 싶어진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료를 더 찾고 정리해서 가족 역사 기록에 실을 수 있다. 혹은 개인 역사 기록을 작성하여 가족의 기억의 책에 실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역사 기록은 자신의 기록을 보충하기 위해 이를 복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나 이 책을 편집하는 일은 가족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 역사 기록으로 기억의 책에 관해 들어 왔다. 이 책에는 가계도, 가족 기록서, 개인 기록이 들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의 혈통을 탐구하고 신전 사업을 위해 성명을 제출하는데 중요하나 옛날에 “기억의 책”이라고 부른 것의 전부는 아니다.

모세서 6 장 5 절과 6 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아담의 언어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나니, 이는 영감의 영으로써 기록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음이니라.

“이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은 읽고 쓰기를 배웠고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은 언어가 보전되었더라.”

“하나님께 간구한 자”가 아담 시대의 자녀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쳤으므로 이들은 이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영감의 영”으로 쓰인 기록을 참고하였음이 확실하다. 가계도와 양식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기억의 책에는 오늘날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 이상의 내용물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각 가족에게 미친 영향력을 “영감의 영”으로 받아 적어 가족 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표준 경전에서 볼 수 있는 진리의 증거물로서 개인의 경험 즉 계시, 십일조, 금식, 기도 등에 관한 복음 원리를 그들에게 남겨 준다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러한 성스러운 가족 기록이 복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의 밤이나 기타 다른 기회에 이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우리 가족은 8½×11 인치의 세 구멍 바인더에 가족의 성스러운 경험을 기록한다.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싣고 있다.

1. 가족의 축복사 축복문.
2. 교회 직책에 성별되면서 받은 축복 내용.
3. 병을 앓거나 다른 일로 받은 특별한 축복 내용의 요약.
4. 유아 축복, 확인, 신권 성임 축복 내용의 요약.
5. 침례식 혹은 다른 행사 때 받은 인상이나 느낌.
6.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
7. 기타 우리가 포함시키고 싶은 경험담.

이러한 기록을 자녀들은 즐겨 읽는다. 우리는 가정의 밤에서 필요할 때도 이를 활용한다. 일례로 지난 가을, 딸 아이 케리가 침례를 준비할 때 그녀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언니인 지미가 3년 반 전에 얻은 경험을 적은 기록이었다. 지미가 받은 인상이 케리에게도 침례 후 그녀의 느낌을 적게 한 계기가 되었다.

내가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성별받을 때 클래런스 디 새뮤얼슨 스테이크 부장님은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 아내와 나는 집에 오자마자 그 축복의 내용을 기억해 기록으로 남겼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스테이크 부장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었으며, 그 중에서 많은 것이 성취되어 갔다.

사진, 스크랩북, 수공품, 가구, 등도 우리와 선조의 생애를 기억하게 해 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성스럽게 기억될 수 있는 추억을 일깨워 준다면 그것

들도 우리 가족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기록 작성의 방법도 여러 가지이며, 기록의 형태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주님께서는 물론경의 예언자 니파이에게 기록 작성의 모범을 보이게 하셨다. 니파이일서 9장 2, 3, 4 절을 읽어 보자.

“또한 내가 이미 판에 관하여 말한 대로, 보라 이 판에 이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린 기사가 남겨져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이 판을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며,

“다른 판에는 왕들의 치적과 이 백성들간의 불화와 전쟁을 기록하라 하셨음에 이 판에는 백성들을 가르친 기사가 더 기록되며 다른 판에는 왕들의 치적과 이 백성들간의 불화와 전쟁의 기사가 더 기록되리라.”

우리가 모든 영적인 경험의 기록을 니파이의 작은 판에 비교하고, 기타 요구되는 모든 다른 기록을 니파이의 큰 판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내용을 각기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으로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 왕국의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우리의 후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 이 기록의 중요성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어떤 형태의 기록이 후손들에게 가장 깊이 인상을 주게될까?
3.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가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4. 나의 왕국이 하나님 왕국의 축소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기록 작성에 있어서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
5.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왕국의 시작에 관한 기록을 갖고 계실 것이다. 나도 역시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후손을 위해 나의 왕국의 시작에 관해 그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

*

지미 비 파커 형제는 교회 계보 관계 자료 책임자로, 현재 바운티풀 유타 웨스트 스테이크, 바운티풀 제5와드 아론 신권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개인 역사 기록 작성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계보 사업에 대한 책임은, 하려면 철저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보 사업은 말일성도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다른 부름이나 책임과 함께 이것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침례가 필수적인 것같이 죽은 자에게도 침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례차례 실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여기서 그들을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전서 전편은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성구와 권고의 말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작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모른다면 현재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만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애에 관해 몇 자를 적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집한 기록이므로 정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게 되면 매우 흥미롭고 영감에 찬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팩커 자매와 나는 우리의 기록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를 여행해야 하는 일로, 대가족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사람이 갖는 집 안팎의 일로, 충분한 시간을 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초조해져서 마침내는 하루 중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도리 밖에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성탄절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정상 일과로 들어가서는 매일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모았고, 수주일 하는 동안 우리가 이룬 일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

은 우리가 어떤 영에 인도되고 있으며, 장막 저편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점입니다. 일어나야 할 일들이 속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고 다니며, 이 사업의 중요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 우리의 그러한 간증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기록을 정리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만 해 오던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찾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가족 탐구 사업이 영감받아 행해지는 사업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영감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작이 문제입니다.

일단 시작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책임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영감이 임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의지를 함부로 변경하시지는 않습니다.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에 대한 간증을 얻으려면 그 일을 직접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의 자료로 시작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계보 사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현재의 상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



몰몬 일지

왜 모든 자매에게 상호부조회가 필요한가

마크 이 피터슨 장로

모든 것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나 부패만이 아닙니다. 복음 원리에 위배되는 세속적인 원리와 이상론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의 겸손한 충고보다는 세상의 지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우리 생활의 방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교회를 조직하셨을 때 그분은 교회에 상호부조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조직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까?

상호부조회는 회복을 가능케 한 위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회복된 교회의 일부로 세운 조직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후 초기 나부 시절에 교회의 여성을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상호부조회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1. 모든 말일성도를 훌륭하게 이끈다.
2. 강한 가정을 이룬다.
3. 결혼 생활의 유대를 강화한다.
4. 훌륭한 말일성도 자녀를 키운다.
5. 자선 봉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에서 황금율을 실천한다.
6. 이웃과 지역 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7. 자매들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8.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양서를 접하게 하고 문화적 소양을 함양시킨다.
9.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협조자가 되어 갖는 인생에서의 영적인 역할을 알게 한다.
10. 자매들에게 몰몬 여성이 이등 시민이 아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계약받는 테두리 속에 있지 않으며,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성 해방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상호부조회가 교회의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직인 이상 모든 말일성도 자매가 다 이를 필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이 조직이 필요없다”고 말할 자매가 있습니까?

상호부조회는 말일성도 여성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그보다도 이 조직은 말일성도 가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은 모든 가정에 유익을 가져다 주므로 모든 가족이 이를 지원하고 모든 자매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이 모임에 참석하여 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해야 합니다. 가장 되시는 분은 아내가 이 조직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남편은 가사일을 위해, 가정의 분위기를 위해, 가정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 조직을 활용할 욕망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장은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회복된 하나님 왕국의 일부를 가정에 옮기는 방편으로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남편과 가장은 아내의 상호부조회 출석을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반드시 이 일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매가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상호부조회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회복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상호부조회를 알리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위한 시온산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들의 가족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들을 이끌어 올때 여러분은 이들 가정에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모든 자매를 힘써 상호부조회로 인도하십시오. *

남편은 아내가 이 조직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가장은 가사를 위해,
가정의 분위기를 위해
가정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내가 그리던 어머니

원더 웨스트 배저

어머니는 내가 여섯 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어머니를 나의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특히 침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그랬읍니다. 나는 어머니의 활동, 데이트, 외복은 어떠했는지 혹은 주일학교에서 공과를 가르치셨는지가 늘 궁금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열 여덟 살이 되었을 때 후일에 나의 열 여덟 살이 되는 딸이 볼 수 있도록 책을 한 권 써서 보관하였읍니다.

내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나의 외할아버지께서는 집에서 발견하신 노트 한 권을 나에게 갖다 주셨읍니다. 그것은 1917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작된 어머니의 5개월간의 일기였읍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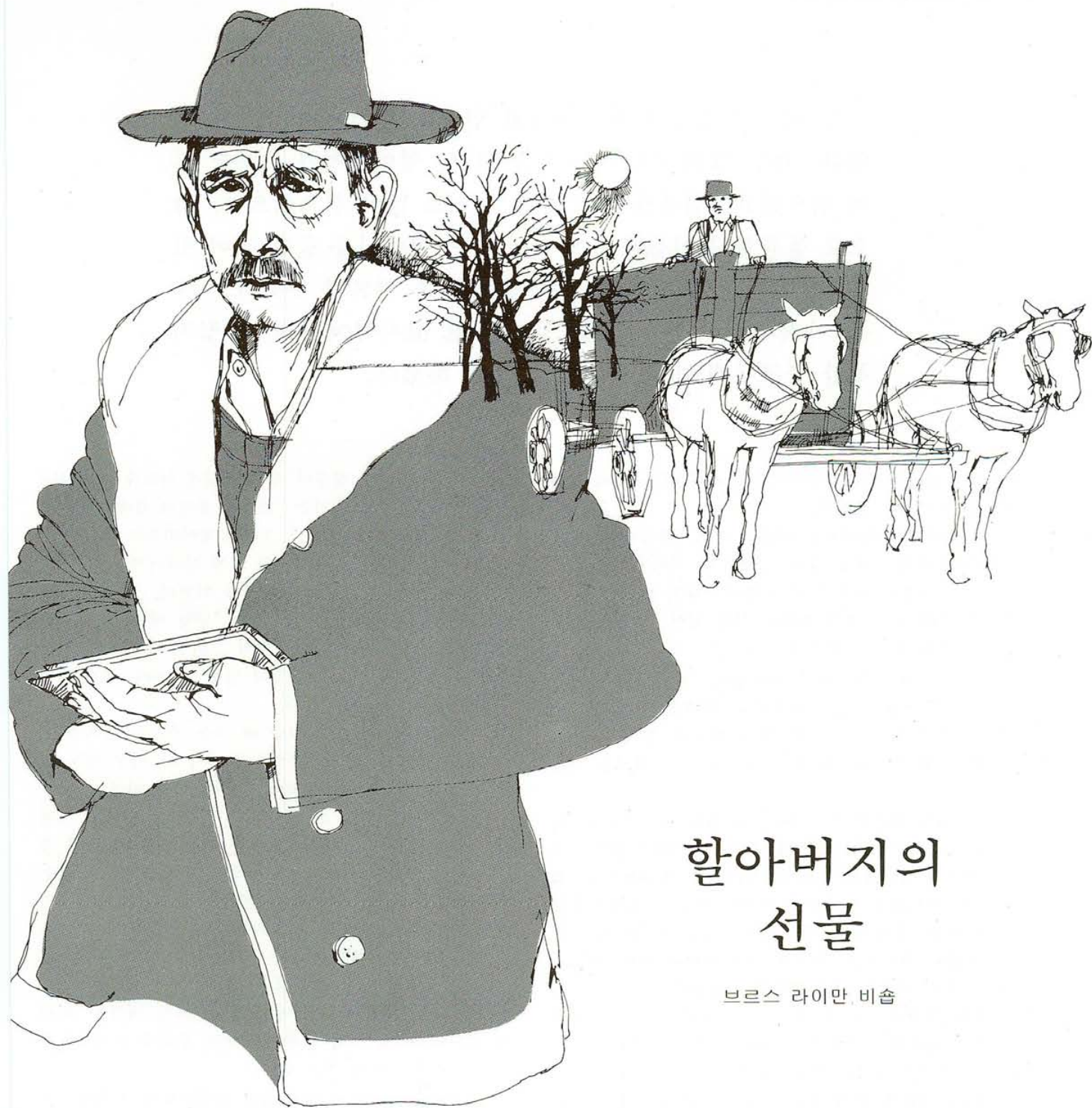
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기록하신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머니의 일상 활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읍니다.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탁, 청소, 식사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른 일에도 시간을 내셨습니다. 5개월간 24편의 영화를 보셨습니다. 나는 또한 어머니의 데이트와 그레이크 솔트레이크 해변 휴양지로의 여행, 토요일 오후 솔트레이크시티 리버티 파크에서의 산책, 매주 주일학교에서 맡은 공과 등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읍니다.

1975년 가을에 캘리포니아주에 살던 사촌이 수십 장의 어머니 사진이 든 이모의 사진첩을 가지고 왔읍니다. 마음속에 그리던 염원이 이루어졌읍니다. 어머니는 항상 미소를 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옷 또한 멋있었읍니다. 벨벳 스커트, 리본 달린 블라우스, 꽃으로 장식된 모자 등 모두가 아름다웠읍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고 어머니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머니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읍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어도 낯설지 않을 것 같았읍니다. *





할아버지의 선물

브르스 라이만 비숍

앨버트 라이만과 그의 부친은 아침에 일어나서야 밤새 말이 도망간 것을 알았다. 그들은 마을에서 150킬로미터나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가축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그들은 걸어서 되돌아가는 동안 연명할 식량이 떨어져, 도망친 말을 찾든지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할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앨버트가 힘이 있고 젊기 때문에 도망친 말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는 사막에서 하루 반나절을 헤매었다. 목이 땀다. 몹시도 힘이 들었다. 발에는 피가 맺혀 가죽 신에 배어 들었다.

몹시 지쳐 실망에 빠졌다. 맨손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해 봤다.

그러나 그의 귓전에는 “자 계속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이 정도는 견뎌야 사내라고 할 수 있지, 여기서 포기한다면 끝장이란다. 계속해 봐, 넌 다른 사람이 될거야.”

그래서 앨버트는 아픈 발을 옮겨, 마침내 그날 밤에 말들을 찾고 말았다.

한 마리의 말에 타고 다른 한 마리를 끌고 캠프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길 옆 큰 바위 위에서 그를 지켜

그 일지가 훌륭한 할아버지의 인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의 자녀가 일지를 읽고, 할아버지가 고통도 많이 겪으셨고, 심금을 울려 주는 경험도 많이 겪으셨으며,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다고 감탄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분은 일지를 통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일지에 잘 묘사하여 한번도 뵈지 못한 증조부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

보고 계셨다. 아버지는 미끄러지듯 바위에서 내려와 피맺힌 아들의 다리를 보았다.

늙은 아버지는 엘버트를 말에서 내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안고 바위 아래로 갔다. 엘버트는 아버지가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결코 잊지 못했다. “네가 이 말들을 찾아 데리고 온 일은 내가 클레이 힐을 넘어 가축 떼들을 몰고 온 것보다도 더 값진 일이란다.”

엘버트 알 라이만은 나의 조부였다. 나는 할아버지가 그때 일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친이 그에게 한 말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열 세 살 때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일지를 쓰셨다.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우리 집을 방문하시면 이야기와 노래와 기도와 간증의 축제가 벌어지곤 했다. 그는 유타주 브랜딩에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올라오시곤 했다. 어린 손자들은 이때를 고대하곤 했다. 할아버지는 인디안 영웅, 무법자들, 상후안에서 잃은 소녀를 찾기 위해 기도했던 개척자들, 부모에 대해 지녔던 사랑, 주님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곤 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그의 일지가 훌륭한 할아버지의 인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의 자녀가 일지를 읽고, 할아버지가 고통도 많이 겪으셨고, 심금을 울려 주는 경험도 많이 겪으셨으며,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다고 감탄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분은 일지를 통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일지에 잘 묘사하여 한번도 뵈지 못한 증조부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

그는 항상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글을 쓰셨다. 강인한 분으로 어떠한 재난도 이겨 내신 분이였다. 그는 이렇게 쓰셨다. “고통을 슬퍼하느니보다는 고통을 당하고도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을 슬퍼하라. 고통, 가난, 실망은 사라지나 그 영향은 후에도 남게 된다.”

여덟 살 먹은 그의 아들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을

때 그와 같은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었다. 장례식을 집행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영혼의 불멸에 관해 간증하셨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그러한 말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아셨다.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 주기 위해 그는 “만일 내가 그러한 슬픈 입장을 당하게 되더라도 역시 그러한 간증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전해서 내가 한 말이 참된 의도라는 것을 알려 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복음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다만 울고만 싶었다.”라고 하셨다.

장례식에서 느낌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마침내 나에게 확신이 생겼으며, 나는 영의 세계, 인간의 불멸, 주님이 자녀에 대해 갖는 끝없는 목적을 눈으로 보는 듯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그것을 말할 수 있었던 확신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불굴의 신념, 가족에 대한 사랑, 구세주에 대한 헌신이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의 손길은 아직도 우리를 그가 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 세상으로의 여정은 큰 기쁨을 주니, 이는 그의 부친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셔서 그를 안아 주시고, 복음을 사랑한 그를 껴안고 반겨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그곳에 갈 터이니 너희들이 올때 모두가 기쁘게 만나도록 하자.”

만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값진 유산을 기록으로 남기신 할아버지의 덕택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용감했던 순간들

케이드 크리스찬슨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성도들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오셨을 때 열한 살 난 존은 홀랜드의 로테르담에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몇년 전에 안질로 눈이 어두워 졌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이 로테르담에 도착하기 전날 밤 존은 어머니와 예언자에 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모임에 나를 꼭 데려가 주셔서 대관장님이 내 눈을 보게 해 주세요. 눈이 나을거예요.”라고 그는 졸랐습니다.

“함께 가자 그렇지만 대관장님은 너무 바빠서 너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실꺼야”라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수많은 성도들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존은 영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통역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스미스 대관장님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예언자와 악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스미스 대관장님이 자기의 눈을 툴림없이 보게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때 대관장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더니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존의 눈에 두른 붕대를 벗겨 눈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대관장님은 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존이 어머니와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눈의 아픔은 씻은듯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차 붕대를 벗겨 버렸습니다. 그는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 소리쳤고, 참된 예언자의 병고치는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

한 걸음 앞으로

낸시 엠 암스트롱/글
크레이그 패처/그림



하루 종일 돼지떼들을 지키고 있는 톰에게는 하루가 몹시도 길어 보였다. 돼지를 치게 되자 자기도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기분이 좋았으나 곧 이 일이 참으로 지루한 일임을 알았다.

처음에는 기사가 되어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아름다운 꿈도 꾸어 보았다. 그러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도 아버지처럼 노예에 지나지 않는 몸이었다. 그는 그의 주인이 그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노예로 남아 있을 몸으로, 룯터워드 마을 교구 농장에 예속되어 있었다.

톰은 이제 돼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우리의 문을 열 때마다 풍겨나오는 고약한 냄새도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우유를 짜던 소녀의 걸을 지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목이 말라 죽겠어. 우유 한 잔만 주겠니.”

“그래, 입을 벌려”하며 젖을 짜던 소녀는

우유가 넘쳐 톰의 옷자락을 적실 때까지 입속에 부어 넣고는 깔깔대며 웃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관리자 잭은 “이 놈들 좀봐, 우유를 쏟다니. 혼 좀 나 봐야겠구나, 둘다”하며 소리질렀다.

톰은 잭이 손질하는 말이 이 교구의 말이 아닌 것을 알았다. “누가 그 말을 타고 왔나요?”하고 톰은 물었다.

“주인 나으리 위클리프가 타고 오셨다.”하며 잭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주인님이 이곳에 머무실 계획이니까 품행을 조심하도록 해. 밤에는 다른 손님도 오신단다. 자 어서 가봐. 네 엄마가 부엌에서 널 찾더라.”

톰은 한숨을 내쉬고 쥘단을 바구니에 담아 우리로 갔다. 위클리프씨가 여기서 오랫동안 무엇을 하실 작정인가 보지. 왜 옥스포드에서 계속 가르치시지 않을까? 하고 톰은 생각했다.

부엌 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툼, 잘 왔다.”하며 부엌일을 맡아 하는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애, 저 식쇠 좀 뒤집어 놓거라. 한나한테는 좀 무겁고, 한나는 나를 도와 고기 완자를 만들어야 해.”

곧 톼은 자기도 닭요리와 함께 불에 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팔이 아프고 배가 고왔다. 그는 주인과 손님이 음식을 좀 남겼으면 하고 생각했다.

툼의 어머니는 닭요리를 데우기 위해 난로 옆 목판에 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툼, 난 윗층에 올라가 식탁 차리는 사람들을 도와라.”

“주인님이 학교를 아주 떠나셨나요?” 하고 톼이 물었다.

“쫓겨나셨대”하며 어머니가 껏속말로 대답했다. “책이 그러는데 종교에 대한 주인님의 생각이 잘못됐대.... 그런데 그건 그렇지가 않은가봐. 주인님은 종교의 신비로움을 밝혀 우리같은 사람도 복음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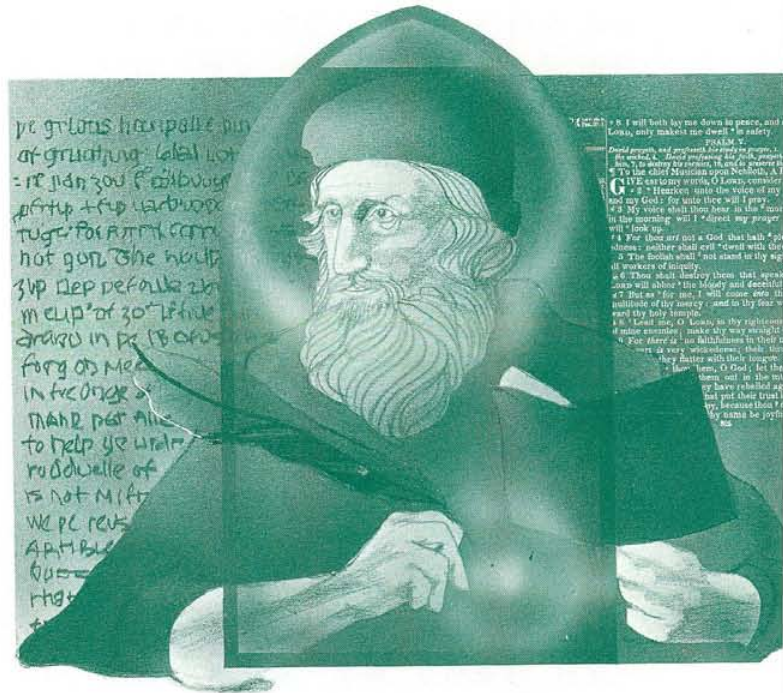
몇시간이 지난 후 톼은 부엌에서 저녁을 먹으며 아까 윗층에서 들은 이야기를 골똘히 생각했다. “어머니, 어머니는 주인님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바꾸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분은 그걸 번역이라고 하셨어요. 새로 오신 손님이 그 일을 도울거래요. 주인님은, 농부의 영을 구원하는 것은 왕의 영을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지. 난 그런 말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지만, 이곳 사람들 속에서는 평등하지 못하다고 믿어”하며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툼은 닭의 날개 부분을 잡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번역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어를 아는 사람은 많단다.”하고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우리도 누가 읽어주면 들을 수 있잖니.”

“제가 읽는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



요?”하고 톼이 물었다.

“글쎄. 그건 어려운 일일거야.”하며 어머니는 서글픈 듯 대답하셨다.

툼의 눈에서는 실망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다음날 아침 위클리프씨 서재에 불을 피우러 갔을 때 톼은 검은 복장을 한 손님이 벌써 책상에 와 계신 것을 알았다. 톼은 양피지 위를 깃털펜으로 써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으나 주인은 소년이 방에 있는 걸 알아 보지 못했다.

며칠 후 날이 밝기 전에 불을 피워놓으려고 내실에 들어간 톼은 서재가 비어 있음을 알았다. 한 아람의 장작을 벽난로 위에 놓고 그는 책상 옆 탁자 위의 촛불을 켜었다. 그는 초를 치켜들고 양피지 위에 씌어진 글씨를 내려다 보았다. 톼에게는 흰 종이 위에 찍힌 검은 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글이라는 것을

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직자만이 성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다. 그렇지만 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믿어.”

책과 철판과 분필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톰에게는 하루 하루가 꿈만 같았다. 마침내 그는 펜과 잉크로 양피지에 글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위클리프씨는 목사관에 있는 큰 홀을 개조하여 수도원의 기록실처럼 꾸몄다. 필경을 맡은 소년들은 모두 각자 책상을 배당받았다.

성탄절에는 여러 가지 나무로 목사관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성탄 전날 밤에 아이들은 캐롤을 부르며 장작을 서재로 날랐다. 타오르는 불 앞에서 위클리프씨는 그리스도 탄생의 이야기를 읽어 주었다. 영어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므로 모두 정신을 빼앗겼다. 구운 사과, 밤, 복숭아, 과자, 고기 파이를 먹고 아이들은 위클리프씨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톰은 방 청소를 하기 위해 남았다. “불 가까이 오너라.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하고 위클리프씨가 말했다.

톰은 의자에 앉았다. 주인은 책상에서 양피지를 한장 꺼내 들었다. “애야, 넌 내가 신앙 문제로 두번씩이나 재판을 받은 걸 알지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된것은 런던 시민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란단다.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어려움이 따르게 될거야. 목사들은 일반인에게 영어로 된 성경을 읽히는 것은 이단이라고 떠들고 있지. 성스러운 책은 무식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거야. 오늘날의 교회는 탐욕과 물욕으로 가득차 있어. 난 모든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초기 기독교인처럼 소박한 생활과 믿음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그렇지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니?”

위클리프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톰에게 양피지를 넘겨 주었다. “너와 네 어머니에게 주는 성탄절 선물이란단다.”하고 말했다.

톰은 내용을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변호사가 만든 문서에 위클리프씨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톰과 그의 어머니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증서였다. “왜... 왜 이런 큰 선물을 주시나요?”하고 톰이 물었다.

“기록실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자유민이란단다. 사태가 위험해 지더라도 그들은 마음대로 결정해 남거나 도망할 수가 있지. 너에게도 똑같은 특권을 주고 싶단다.”

톰은 멍한 상태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목이 메어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결코 떠나지 않겠어요. 결코! 제가 옮겨 적는 원고 한장 한장이 저와 같은 다른 소년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주인 어른은 톰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너야말로 네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성탄절 선물을 내게 주었다. 우리 일에 대한 충성심이 그거지. 자 가서 어머니에게 문서를 읽어 들려라.”

*





여러분 자신의 일기를 기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값진 인생의 경험을 오늘부터 일기에 남기십시오.

성도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일기를 쓰도록 권고받았으며, 그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 지도자는 계속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1833년 교회에 입교한 후부터 매일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그날의 행사와 느낌을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여러

분, 매일 일어난 일을 일기에 적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소년 소녀 여러분, 조그만 공책을 구해 매일 그곳에 조금씩이라도 일기를 씁시다.”

특별한 행사만을 적겠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의 일, 소망, 실망 등을 적어 후일에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 신나다! 오늘 축구공을 선물받았다.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 문어와 여러 가지 바다 동물에 관한 영화를 보았다.

친구 영철이가 이사를 갔다. 다시는 못만날 것 같다.

3주 지나면 아버지가 나를 집사로 성임하신다.

여러분은 공책이나 바인더 혹은 일기장에 일기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일기는 개인적인 것이며,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느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얻고, 신앙을 증진시킨 경험, 침례와 복음 의식에 관한 행사 기록은 여러분과 후손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가정의 밤 추억의 기록...

브라운 형제 가족은 가정의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방문을 하신 할머니는 아빠가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도표를 만드시는 걸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븐에서 초코렛 과자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마가렛은 의자에 찬송가를 정돈해 놓고 있었습니다. 가드는 방에서 조그마한 공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공책에 기록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라고 가드가 말했습니다.

“공책이라니?”하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가정의 밤 기록부예요. 내가 서기거든요. 기록을 할꺼예요. 1월부터 지금까지 무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공과 내용도 모두 알 수 있지요.”라고 가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공책을 펴보셨습니다. “참 훌륭하구나, 추억을 담은 기록부가 되겠어.... 내용도 무척 재미있구나!”

할머니와 가드는 함께 가정의 밤 기록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965년 1월: 어머니가 등을 다치셔서 침대에 누어 꼼짝도 못하셨다. 우리는 책과 의자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침대 곁에 모두 앉아서 가정의 밤을 가졌다.

1965년 2월: 재미있는 가정의 밤이다. 난 마가렛이 내가 그녀의 오빠가 된걸 것처럼 좋아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 관해 알고 있는 좋은 점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아빠가 공던지기를 하며 놀아 주셔서 좋다고 말했다.

1965년 3월: 오늘 우리는 마이크와 그의 가족을 가정의 밤에 초대하였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다음 기회에 오시겠다고 하셨다. 마이크는 와서 재미있게 놀았다.

1965년 4월: 어머니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셨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공과를 해 주셨다.

1965년 5월: 오늘밤 우리는 어머니에게 감사할 드리는 가정의 밤을 가졌다. 아빠와 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마가렛이 식탁을 차렸다. 공과 시간에 우리는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냐를 말했다.

1965년 6월: 오늘 가정의 밤에서 마가렛이 재미있는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마당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1965년 7월: 어제밤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가졌다. 우리는 도시락을 싸들고 계곡으로 소풍을 갔다. 저녁에 아빠가 모닥불을 피워 놓고 공과를 하셨다. 다람쥐가 뛰어나와 함께 공과를 들었다. 다람쥐도 가족이 있겠지....

할머니와 가드는 기록부를 덮었습니다.

“자 오늘밤에는 ‘할머니가 오셔서 재미있는 가정의 밤을 가졌다.’라고 써야겠어요.”라고 가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

심심 풀이



가



나



다



라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헬렌 알 새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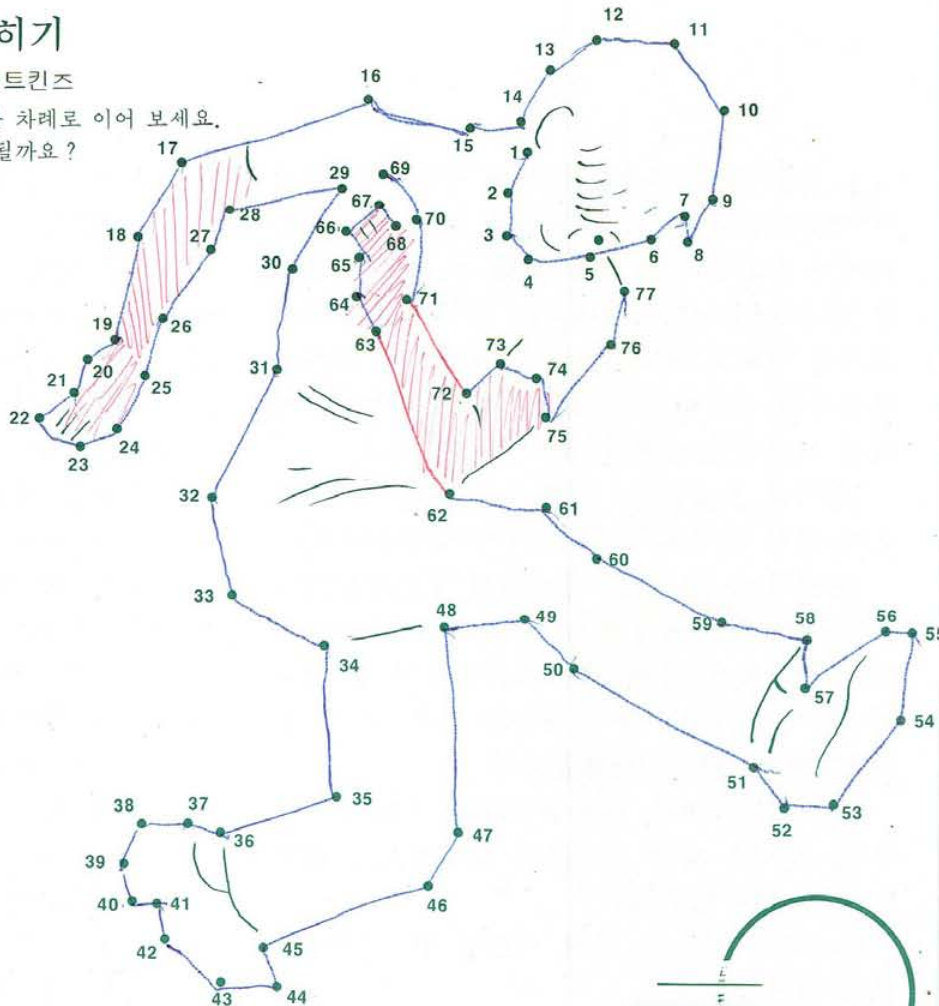
삼각형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숫자 익히기

힐다 케이 와트킨즈

아래의 수자를 차례로 이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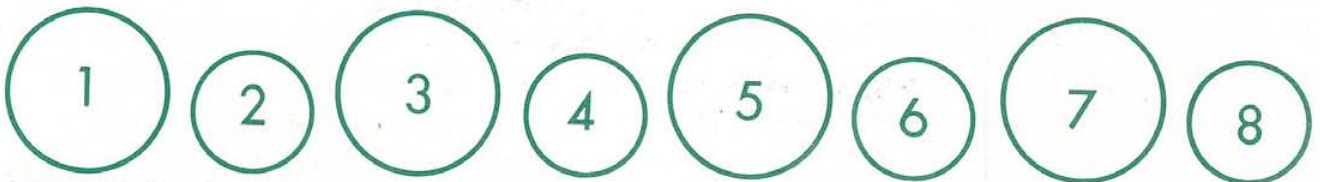
무슨 모양이 될까요?



끼리끼리 모으기

올가 시 브라운

종이에 지름 2센티인
큰 원 4개와 1.5센티인
작은 원 4개를 그려서
가위로 오려 내세요.
한 줄로 놓되, 큰 원
다음에 작은 원, 작은 원
다음에 큰 원을 놓은 후
차례대로 1부터 8까지
번호를 붙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두 원을
동시에 움직여 큰 원은
큰 원끼리, 작은 원은
작은 원끼리 모아
보세요.



해답 : 2번과 3번을 8번 오른쪽으로 옮긴다.

5번과 6번을 2번과 3번의 빈 자리로 옮긴다.

8번과 2번을 5번과 6번의 빈 자리로 옮긴다.

1번과 5번을 8번과 2번의 빈 자리로 옮긴다.

해답

(가) 16 (나) 10 (다) 13 (라) 13

아들: 아버지, 오늘 아침 감독님께서 제게 멜기세덱 신권 부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아버지께 신권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과제를 받았구나. 신권이란 나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어린 전에도 신권에 관해서 수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무엇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뭐 특별한 질문이라도 있니?

아들: 제가 처음 듣는다고 가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단번에 전체적인 개요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아버지: 물론이지. 자 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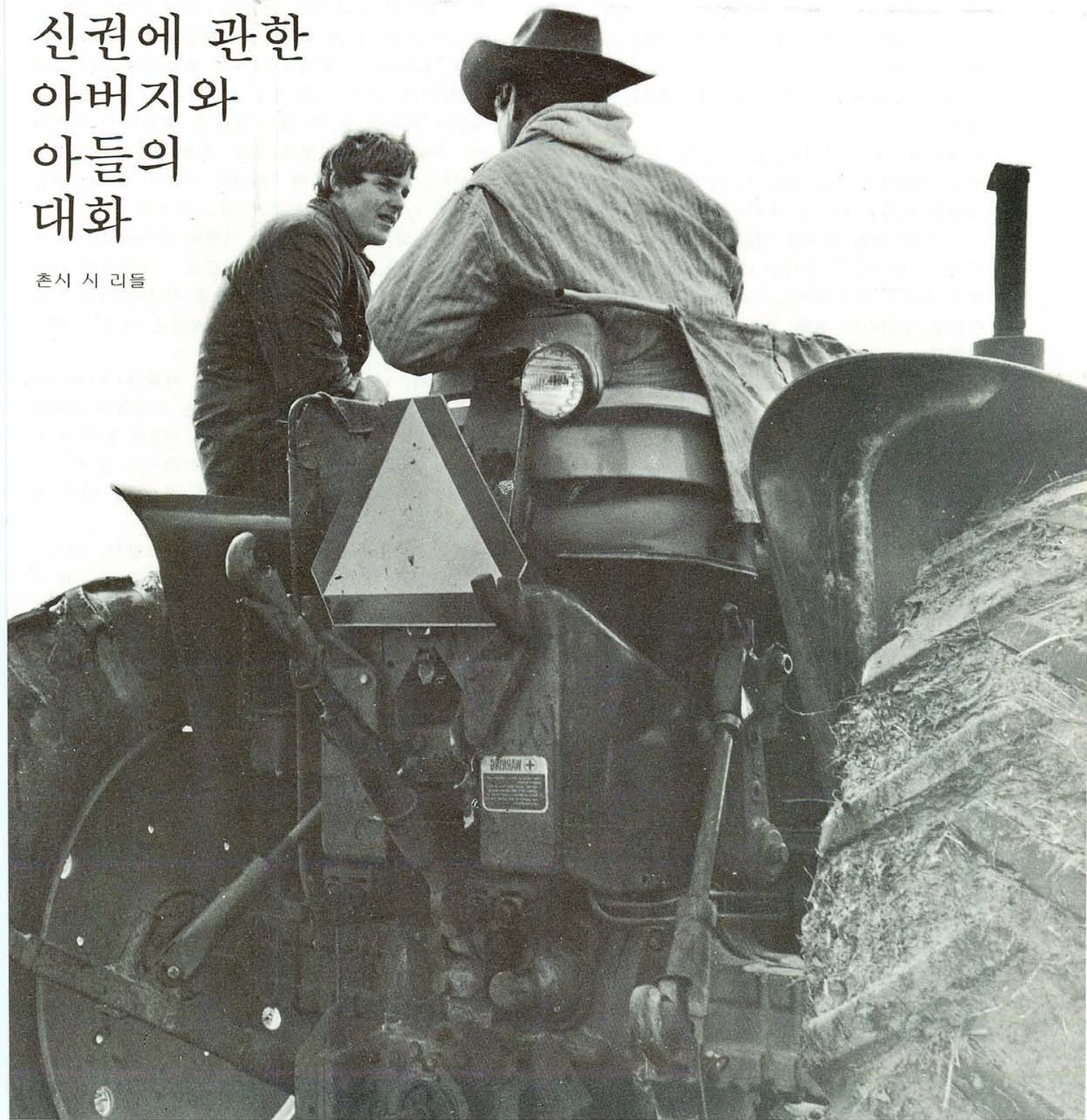
아들: 첫째로 신권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간단히 말해서 신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도록 위임된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들: 왜 예수님을 대표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지 않구요?

신권에 관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촌시 시 리들



아버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고 있지?

아들: 예, 예수님도요.

아버지: 그렇단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는 달라.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우리의 맏형이었어. 그런데 그분은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된 거야.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이곳에 살게 하시고, 지구를 관리하셨고, 구속을 통해 이곳에 오게 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어,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임무를 받지 않았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청지기 직분이었지.

아들: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하셨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아버지: 물론 아니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지. 바로 신권이 연유한 것도 이 때문이란단다. 그러나 구세주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야. 이 지상과 이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은 분이 바로 구세주란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지구를 창조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하셨단다.

아들: 왜 예수님이 구세주로 택함을 받게 되었지요?

아버지: 그 이유를 전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단다. 나는 아버지께서 전세에 예수가 지냈던 위대하고 순수한 사랑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대표하도록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단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매사에서 그분의 뜻을 따랐단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같은 타인에 대해서 큰 사랑을 갖고 계셨어. 예수의 사랑이 참으로 순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거지.

아들: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랑을 지닌 사람이 없었나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 중에도 그와 같은 분이 있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란단다. 그분은 머리가 되는 사람을 단 한 분으로 지정하신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17절; 마 3:17, 17:5 참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과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지. 그러므로 구세주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위대한 대체사가 되신거야. 우리가 신권을 받는 것은 구세주의 권능을 받는 거란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교성 107:3 참조)이라고 부르지.

아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겠군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큰 사랑을 지녔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아버지: 나는 그와 같은 순수한 사랑을 지녔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언급한 바 있는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구세주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 지상을 다스리신단다.(아브라함서 3:22~23 참조)

아들: 각 시대의 통치자들을 볼 때 그건 믿기 어려운데요.

아버지: 세상의 통치자들을 볼 때 그렇지, 경전은 왕이나 장군이나 대통령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란단다. 구세주의 통치란 영원한 축복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그가 임명한 분들이야, 신권 소유자를 말하지.

아들: 구세주께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순수한 사랑을 지닌 사람을 택해 그의 신권을 부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훌륭한 말씀이신데요, 내가 교회에서 보는 것과 연관지어 보기가 어려운 면도 있군요. 교회에는 신권을 소유하신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 순수한 사랑은 그만 두고라도 타인에 대한 사랑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버지: 폴,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란단다. 나도 네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단다. 신권을 소유했다고 모두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아들: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구세주의 신권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버지: 좀 겁이 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도 그렇다. 구세주께서 유대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설명하셨을 때 그들은 실의에 빠져 이렇게 물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의 대답은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안겨 주었지. 그는 그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마 19:23~26 참조) 그 대답을 이해하겠지?

아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없이 완전해 질 수 없다는 뜻이죠.

아버지: 맞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도 우리의 최선을 다 한 후라야 가능하다 한 경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 (니이 25:23 참조)

아들: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신권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이 완전한 사랑을 지녔다고 믿기가 어려운데요.

아버지: 현저하게 눈에 띄인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란다. 기적이란 소수의 수가 이루는거야. 시작과 끝을 분리해 놓고 보면 이해하기 쉽지.

지상에 처음 놓인 인간이 구세주를 완전히 대표할 만큼 지혜롭거나 선량하고 타인을 축복하는 데 완전한 사랑을 지닐 수는 없지. 그러므로 구세주를 대표하게 될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거란다.

그러한 과정의 시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거야. 우리는 약점을 고백해야 하고, 구세주의 이름을 받들고, 그를 항상 기억하고, 침례로서 그가 주신 지시를 따르겠다는 성약을 맺어야 해. 제사들이 성찬을 축복할 때 되풀이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약속이란다.

아들: 예, 저도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약속으로 충분한가요?

아버지: 아니지. 그것은 필요한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러한 약속을 하게되고, 그후 우리는 성신을 받게 되지.

아들: 확인을 받을 때 말이지?

아버지: 그래, 성신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은사 중 하나란다. 성신의 힘은 우리에게 구세주처럼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며, 구세주의 지시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지. 침례요한도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그러나 그는 구세주가 행하실 불의 침례인 성신의 침례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 구세주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셨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거룩한 성신권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신의 힘이란다.

아들: 아론 신권은 어떤가요?

아버지: 요한이 먼저 와 침례를 받고 구세주가 성신으로 침례 줄 제자들을 준비시켰듯이 아론 신권도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진다. 너는 집사로서 성찬을 전달하고 금식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배웠지. 교사가 되어서는 가정 복음 교육을 했고, 이제 제사로 성찬을 축복하고, 선교 사업을 시작하고, 침례를 베풀게 되었지. 계속해서 감독님과 함께 예배당 주변을 돌보고, 복지 농장 사업에 참여하며, 와드 회원들을 도왔어. 너의 나이 또래의 청소년 중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게 되지?

아들: 제사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 사람이죠.

아버지: 맞았어. 젊은이가 세상적인 일에 근면하고 성실하며, 순종하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훌륭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다. 열 아홉 살이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면 구세주를 위한 사업에 전문가가 된 거야. 성실한 제사가 갖는 태도와 습관은 보다 높은 신권의 직분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단다. 교회에서 신권의 권능으로 일하고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랑이 깃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셈이지. 풀, 네가 선교사로 봉사하든지, 교회 조직에서 봉사하든지, 남편과 가장으로서 일하든지, 신권의 부름에서 네게 거둘 수 있는 성공은 타인에 대한 이기심없는 사랑과 관심의 깊이로 측정된단다.

아들: 세상적인 일을 규모있게 능률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면 타인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버지: 그렇다. 게으르고, 단정치 못하고 불순종한 선교사는 회복된 복음이 특별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없지. 항상 일을 뒤로 미룬 장로 정원회 회장은 다른 사람이 뛰어나게 일을 처리하도록 동기를 줄 수 없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가장은 그의 가족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할 수 없어.

아들: 아론 신권의 기능인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를 알겠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봐요.

아버지: 물론 있지. 우리 지금 순수한 사랑의 기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란다. 우리는 그러한 기초 위에 지식, 기술, 지혜, 사람들과 그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해야 한단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은사이지,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신으로 가득 차게 된단다. 그럴 때 그러한 은사가 따르게 되지.

값진 경전을 살펴보기로 하자. 교리와 성약 121편을 펴보겠니? 34절부터 끝 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모두 기억하고 자주 외워보아야 한다.

34절과 40절을 보겠니.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라는 말씀이 있지. 왜 그럴까? 35절은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인간의 영예를 좇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신권을 소유한 우리들의 목표는 봉사하고 축복하는 데 있단다.

36절은 하늘의 권능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권을 운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지. 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성령의 권세나 은사를 지닐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단다.

37절은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성령이 우리로부터 사라지며, 그것이 사라질 때 신권의 권세도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지. 우리는 신권을 합당하고 의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순결하고 유덕해야 한다.

38절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신권의 기회를 받아 실망하게 되나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들은 신권에 대항하여 싸우게 된단다.

39절은 신권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이 순수성과 사랑이 아니라 불의한 지배력으로 이를 행사하려 한다고 증거하고 있다.

40절은 사랑을 지니지 못한 신권 소유자에 대해서 네가 한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들은 회개할 기회와 사랑에 찬 일을 할 기회를 받았으나 여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러한 일을 위해 일어서지 않은 사람들이지.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가 적고 그 신권을 영원히 소유할 자도 적은 것이지.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구세주의 교회에 들어오진 않았어. 우리는 완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 우리는 구세주와 같기 때문에 신권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 그분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와 같이 되는 거야. 그분은 큰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조금씩 발전하도록 돕고 계시단다. 나는 신권 소유자가 신권을 외면하고 영생보다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쏟을 때 구세주께서 매우 슬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단다.

내가 왜 시작과 끝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는지 알

겠니?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합당하지 못했으나 결국에는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성장하는 거야.

아들: 전 구세주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 폴,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매일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최막대기를 꼭 붙잡는 거다. (니일 15:23~25 참조)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은 최막대기를 던져 버리고 의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란다. 항상 긍정적인 면에 마음을 두어야 해.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마음에 두면 사탄의 유혹도 힘을 잃게 되지. 교리와 성약 121편 41절과 42절을 기억하도록 해라. 우리는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신권을 활용해야 한단다. 매일 아침 거울을 향해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외우게 되면 옛날의 니파이와 같이 되며, 죄스러운 생각에 마음이 떨리게 된단다.

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훌륭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용기가 나지 않는군요.

아버지: 그렇단다. 나는 낙담을 할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희망을 걸 수 있는 일이 있어, 다시 마음을 잠곤 했지. 성경 영감역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과 신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단다. 우리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기꺼이 모든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속박을 깨고, 하나님의 면전에 이를 수 있단다. 나는 병자를 고쳐 주고 애통해 하는 자를 축복하며, 어머니와 너희들을 모두 구세주께로 인도하고 싶단다. 나는 구세주가 친히 다스리시는 시온에 살고 싶단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의로운 권세를 지니고 성신권을 활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안단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사이아서 8장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으니, 참으로 선견자는 자기 동포에게 크나큰 유익을 주나이다.”(18절)

아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도 함께 뭉쳐 서로를 강화하면 할 수 있단다. 나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선하심을 알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신권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오게 된 거야. 나에게 구세주의 사랑에 관해서 가르쳐 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단다.

아들: 누군데요?

아버지: 여러 사람이지만 특별히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한 분은 집사 정원희 고문이지. 그분은 집사인 우리들에게 복음에 관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 유년 주일학교의 작은 의자에 앉아 구세주의 구속과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였는지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또 한 분은 장로 정원희 회장직을 맡고 있던 나를 도와 주신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이었어. 그분은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고 영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 그분은 스테이크 축복사가 되셨단다. 그분은 나를 강하게 해주고 항상 인도해 주신 분이야.

세번째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너의 어머니란다. 우리가 신전에서 결혼을 했을 때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나 결혼 생활에 모두 미숙한 점뿐이었지. 우리는 지금도 그때를 회상해 보고 서로 웃곤 한단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단다. 우리는 함께 경전을 읽었단다.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일했단다.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절약했단다. 때로는 서로 냉담하기도 했지. 그렇지만 너희 어머니의 사랑은 극진했었다.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어.

나를 도와 준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구세주와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들: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 가장 값진 기회를 결혼 생활 중에서 얻게 된다. 결혼과 가족의 모든 기능과 목적이란 성신

권의 권세와 운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단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때 너와 네 아내는 영원히 자녀에게 축복을 줄 영원한 신권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나는 돈독한 신앙을 지니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하나님의 딸을 네가 아내로 맞기 바란다. 신전 결혼은 네게 무한한 신권의 축복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네가 아내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인 참 기쁨을 알게 되지.

아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아라. 네가 선교사로서 혹은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봉사하게 될 사람들이 어디엔가 있단다. 현재는 네가 모르지만 네 아내가 될 사람도 어디엔가 있을거야.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거란다. 부름을 받거나 결혼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단다. 현재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고 구세주에 대한 사랑과 영성과 의로움을 지니고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름이 올 때 순수한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 보겠니?

아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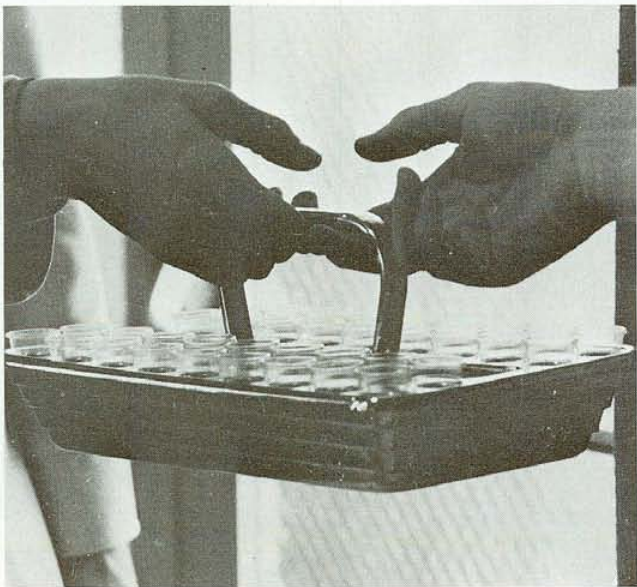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

존시 시 리들, 브리감 영 대학교 대학원장이며 철학 교수인 리들 형제는 오렘 유타 샤론 스테이크 오렘 제16와드의 주일학교 교사이다.



최근에 나는 와드 성찬식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다음 주일날 어느 형제가 내게 와서는 내 말씀에 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말씀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어떤 내용에 감명을 받으셨나요?” 그는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매우 난색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어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우리는 결국 가르치거나 배울 때 영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이해와 느낌, 동기 등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일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의 일원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의 권세가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라.”(니이 33:1)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자세 역시 중요하다.

“천사가 너희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니일 17:45) 나는 왜 니파이가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말에서 느낌이 우러납니다. 니파이가 말했듯이 우리도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느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에스 델워스 영, 1961년 10월, 116~117페이지)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에 성임되지 아니하였

가르치기 위한 준비

데오 이 맥킨



더나?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이 자가 진리의 영이 전파하시는데로 받아들임을 이해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무슨 연고요?”

그런고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14, 21~22)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가장 훌륭한 동반자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그에게 의존하여 가르쳐야 한다.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나?

가르치기 위한 준비

본 시리즈의 첫번째 기사(1977년 4월호)에 나오는 “교수/학습 관계”란 제목의 도표는 교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이행해야 할 책임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간증을 구하고 이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동반자로 가르칠 준비를 갖추려면 우리는 자신이 남에게 전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이를 확신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켜야 한다.

“나의 말을 전파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러한 연후에야 네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 지체로써 네가 나아가야 할 그 시간까지 네 마음속에 간직하여 두라.”(교리와 성약 11:21, 26)

최근에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교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강하게 하기 전에 교사 자신이 먼저 왕국의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와 신앙으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을 갖고 연구한다는 것은 신앙에 찬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학생들에게 확신을 심어 줄 힘을 얻게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순서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다음으로 이해와 영을 믿으며, 끝으로 확신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경전에 몰두하면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좁혀지며, 우리의 영성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모범을 보인 사람들, 종교 교육가에게 행한 연설, 1975년 9월 12일, 2페이지)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관해 쓴 글을 읽기보다는 직접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십시오.”(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 “복음 교사와 그의 메시지,” 종교 교육가에게 행한 연설, 1976년 9월 17일, 5~6페이지)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기본적인고도 지속적인 복음 공부와 함께 교사는 자자의 공과 교재를 준비해야 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교사의 책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이 모르는 바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한 바를 남에게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간증을 남에게 심어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교사는 다음 세 가지 원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주제를 파악하십시오. 둘째, 그 주제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주제가 반원들의 것이 되게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본 바를 보게 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를 알게 하고, 여러분이 느낀 바를 느끼게 하십시오.”(데이비드 오 맥케이, “더욱 완전히 배우게 되리라.”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6년 8월, 557페이지)

어떻게 준비하나

매리온 지 톰니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나에 관해서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1. 열망함. 경전은 인간이 그들의 소망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망하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심을 내가 앎이라.’(앨 29:4)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지리라.’(교성 6:8)

“2. 연구함. 실현될 수 있는 열망이란 막연한 바램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열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망이 신권 소유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일 중 한 가지는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탐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므로, 그것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계명의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라.’(교성 1:37)

“우리는 ‘성경과 물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교성 42:12)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존 휘트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경전을 연구하는 일....을 수행함에 너희 시간을 바치라...’(교성 26:1)

“3. 깊이 생각함. 나는 경전을 읽으면서 물문경에서 자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로나이는 그의 기록을 마치면서 이러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하나님께서 ... 너희로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 ... 너희가 이 기록을 받을 때까지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모로 10:3)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연약한지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지금 전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할 줄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깨닫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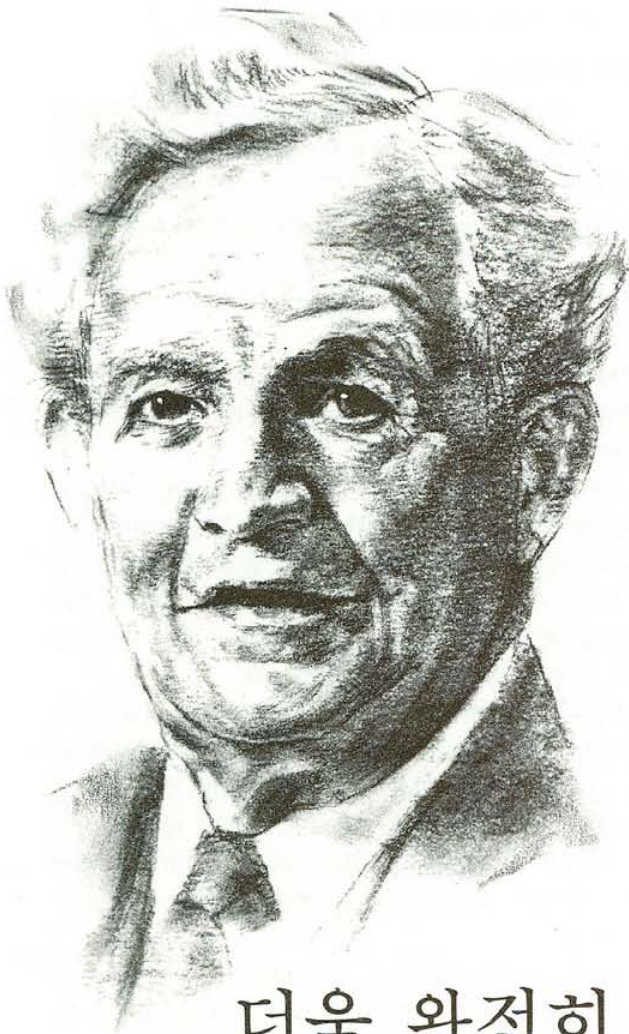
주시기를 간구하며...’ (니파이삼서 17:2~3)

“4. 기도함. 마음에 열망을 갖고, 영생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기는 하나 여기에 기도가 없다면 충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구세주께로 가는 문을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니파이의 권고를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



더욱 완전히 배우게 되리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부른 소명과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고 또다시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모든 일에 준비를 갖추어 두게 하려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88:77~80)

우리는 모두 교사입니다. 말일성도의 가정에서는 가장과 어머니가 주님의 계시에 명시된 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모든 보조 조직과 정원회는 형제와 자매를, 즉 궁극적으로 볼때, 모두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가르치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교사는 자신이 모르는 바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사는 자신이 느끼지 못한 바를 반원이 느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는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 줄 수도 없습니다.

교사는 다음 세 가지 원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주제를 파악하십시오. 둘째, 그 주제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주제가 반원들의 것이 되게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본 바를 보게 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를 알게 하고, 여러분이 느낀 바를 느끼게 하십시오.

교사는 공과를 갖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자신을 살피고, 공과 발표 방법을

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도 너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흑암에 이끌려가 멸망당하리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너희가 마음으로 염려함을 아노니, 이 일이 나를 슬프게 하여 이러한 것을 말하게 하였도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였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가르쳐 기도하면 안된다고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힘을 잃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것도 주 앞에 행하지 않아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들 영육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성결케 하시리로다.”(니파이이서 32:1, 3~4, 8~9)”(매리온 지롭니, 1973년 4월 대회 보고, 116페이지)

영을 받아 가르치는 것은 큰 부름이요 큰 목표이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 성령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가르칠 때는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업이요 그의 영광이다. 우리가 준비되어 남을 도울 때 무한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 *

생각해 보며, 공과에서 가르칠 진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정리하는 것이 반원들의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교회 활동 전반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지 못하고 공과를 마쳤다면 그들이 다음 주에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교사가 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거나 그렇게는 못했더라도 단 한 가지, 마음 속에 생각할 여지를 남겨 주었다면 다음 주에 다시 공과에 참석하려는 욕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일깨워 줄 만한 특별한 생각을 제시한 후에 여러분은 그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인정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 전에 공과를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공과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며, 내가 소화하지 못한 이상, 내가 반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없게 되고,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 잘 준비하여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뜻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공과는 교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공과의 교환을 공부와 신앙과 기도로 나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영”에 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어느 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는 어부였으므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어느날 이들은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았으며, 숯불과 떡을 놓고 먹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계시던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 참조)

가르치는 영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소년, 소녀를 먹이십시오. 소년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길에서 만나더라도 그에게 관심을 표명하십시오. 사랑의 빛을 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의 생애에 좋은 결실을 맺을 진리의 씨앗을 뿌릴 좋은 땅을 찾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인 불사불멸과 영생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계십니까? 교사가 항상 기억해야 하고, 다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이들 가능성을 나는 어디에선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점과 이기적인 방종을 극복하는 자제력을 갖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둘째는 인생을 용기로, 재앙을 불굴의 정신으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세째가 씩씩한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네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가 후에 남편이나 아내, 모범적인 가장이나 사랑이 깊은 지혜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 주는 것, 이것은 교사가 갖는 특권입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는 것. 복음에의 순종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안겨 주며,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과 승영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영감과 지도 아래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업의 신성함을 증거하는 간증을 심어 주어야 하는 직접적인 사명을 갖고 있으니, 그러한 간증없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7:3 참조) (데이비드 오 맥케이,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임프르브먼트 이라, 59:557~58. [1956년 8월].) *

O lo'u lava talaaga. Mi diario. Min dagbok.
Ko 'Eku Tohi noa. 나의 일지. Min dagbog.
Mijn dagboek. Päiväkirjani. 私の日記.
Mon journal. 我的日記. Mein Tagebuch.
Il mio diario. min dagbok. Meu diário.
나의 일지. O lo'u lava talaaga. Mi diario.
Min dagbok. Ko 'Eku Tohi noa. 私の日記.
Min dagbog. Mijn dagboek. Päiväkirja.
我的日記. Mon journal. Mein Tageb.
Min dagbok. Meu diário. Mon journa.
O lo'u lava talaaga. 나의 일지. Mi diar.
Min dagbok. 我的日記. Ko 'Eku Tohi noa.
Päiväkirjani. Mijn dagboek. Mein Tageb.
Min dagbog. Il mio diario. O lo'u lava t.
私の日記. Mi diario. Min dagbok. Mi
Il mio diario. 나의 일지. Ko 'Eku Tohi noa.
min dagbok. Il mio diario. Mein Tageb.
Mon journal. Päiväkirjani. Mijn dagb.
我的日記. Ko 'Eku Tohi noa. Mi di.
Min dagbok. 私の日記. O lo'u lava t.
Meu diário. min dagbok. Mein Ta.
O lo'u lava talaaga. Meu diário. Mo.
min dagbok. Il mio diario. 我的
Min dagbog. min dagbok. Päiväk.
Mijn dagboek. Mon journal. M.
Ko 'Eku Tohi noa. Mein Ta.